

Photonics Special III

“광주, 세계 환경사에 새 길을 열다”



201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2011 Gwangju Summit of the Urban
Environmental Accords



**UEA 광주정상회의 폐막...온난화 방지 도시역할 새 이정표
'저탄소시대' 대책 주도, 광주 친환경 선도도시 이미지 각인**

전세계 115개 도시와 12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11일 광주에서 개막한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구온난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새 도시환경평가지표와 도시CDM(청정개발체제) 개발이 공식화돼 저탄소시대를 이끌어갈 도시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다.

광주시도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행사를 개최하고 굵직한 성과물까지 도출해 냄으로써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우뚝 섰다는 평가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구촌의 최대 위협인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에너지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논의함으로써 '지구 살리기 담론'을 충분히 공유했다는 평가다.

도시들의 친환경 정책과 실천을 평가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도시환경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저탄소 녹색도시화를 위해 새로운 협력기구인 도시환경협약회원도시연합(UEAMA)을 출범시키기로 해 회원들 간의 연대성을 높였다.



또한 정상회의를 2년에 한 차례 개최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 지구의 관심사인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도 커다란 성과다.

광주시는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 상호 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도시 수준에서 가능한 차세대 온실가스 저감기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통해 녹색산업이 도시경제의 신성장 동력원이 되도록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광주 이니셔티브를 공표해 환경문제에 대한 광주시의 강력의지도 천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해외도시 9곳과 환경정책 교류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광주의 환경도시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시는 특히 탄소은행제와 생태복원사례 등 전 세계 도시가 벤치마킹해도 될 정도의 독창적인 환경정책을 해외도시들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환경 도시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성과도 올렸다.

참석자들은 옛 폐선 철로를 활용해 조성한 푸른길 공원과 주민들이 가꾼 북구 각동화 시화마을,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 자연농법으로 공동 경작하는 북구 일곡동 한새봉 개구리논도 방문했다.

UEA광주정상회의에는 78개 해외도시와 37개 국내도시, UN-HABITAT를 비롯한 12개 국제기구 등 127개 도시와 단체 대표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서울에서 열린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를 능가하는 역대 최대 환경행사 규모다. 특히 유엔환경계획(UNEP)이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국제적인 정상회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참여는 미미했다

개회식에도 당초 환경부 차관이 참석키로 했으나 일정이 변경돼 환경부 정책실장이 참석하는데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의 축하메시지가 전달되긴 했지만 UNEP 등 국제기구 대표나 전 세계 도시 정상들이 참석하는 행사 치고는 정부 차원의 참석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UEA광주정상회의 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는 민주, 인권, 평화 가치를 줄기차게 행동해온 광주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와 인류공존이라는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라는데 의미가 깊다” 고 말했다.



UEA 광주정상회의 친환경 녹색정책 선보여 정상회의 기간 전시회 등 통해 온난화 대응책 소개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친환경 정책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에 마련된 도시환경협약 광주환경박람회에는 주제관과 광주광역시관, 세계도시관, UNEP관 등 4개 전시관과 체험관이 설치됐다.

전시관에는 친환경 선도 도시를 향한 광주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으며, 세계 유명 친환경도시들의 우수사례와 UN 산하 기관들의 환경정책 및 활동사업들을 관람할 수 있었다.

체험관에는 학생·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체험프로그램과 친환경 미래도시 세계 어린이 그림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친환경적인 회의 준비와 운영도 돋보였다.

행사장인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행사장 주변은 주민 참여형 친환경 행사장으로 조성됐으며, 행사장 주변에는 신에너지원인 태양열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를 심어 행사의 의미를 더해줬다.

행사장에서는 종이컵 사용 금지, 프린터 재생토너 및 이면지 사용, 재활용 가능한 ID카드 사용 등 재활용이나 친환경 사무용품 등이 사용됐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 설치된 재활용 설치미술 작품 '살리고 살리고'도 설치됐다.

이 가운데 도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프로젝트 건축물인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역 기후와 자연환경을 적극 고려한 패시브 디자인 융합 기술로 제작돼 연간 에너지 소비 저감량(-56%)과 주택 자체의 발전량(+44%이상)을 통해 주택의 연간 에너지 부하량이 제로(0)로 설계됐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 내에는 30가지의 에너지 제로 적용기술이 전시되어 친환경 주거 건축물 보급 활성화뿐 아니라 친환경 건축자재 및 친환경 대체에너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